

성경해석학

제 11 강

개인적인 현대 적용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이유선 (Daughte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3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성경해석학

제 11 강 개인적인 현대 적용

목차

I. 서론(Introduction)	1
II. 다양성(Variety)	3
A. 성경의 가르침(Biblical Instructions)	4
1. 구약(Old Testament)	4
2. 신약(New Testament)	8
B. 사람과 상황(People and Circumstances)	12
1. 상위 가르침(Higher Instructions)	12
2. 하위 가르침(Lower Instructions)	14
III. 지혜(Wisdom)	17
A. 지도자(Leaders)	18
1. 구약(Old Testament)	18
2. 신약(New Testament)	19
B. 공동체(Community)	22
1. 구약(Old Testament)	22
2. 신약(New Testament)	24
IV. 결론(Conclusion)	28

성경해석학

(He Gave Us Scripture: Foundations of Interpretation)

제 11 강 개인적인 현대 적용(Modern Application for Individuals)¹

I. 서론(INTRODUCTION)

한 젊은 목사에 대한 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출입구에 서서 교회당을 떠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정중하게 미소를 지으며 각자의 길을 갔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선 한 노인은 항상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젊은] 목사님, 나는 목사님의 설교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불평했다.

그 목사는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여쭙어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목사님은 나에게 적용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은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필요를 다루지 못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 모두는 성경이 제공하는 격려와 실제적인 지침과 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적이거나 이론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싶은 만큼,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실용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¹ **Dr. Richard L. Pratt, Jr. (Host)** is Co-Founder and President of Third Millennium Ministries. He served a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for more than 20 years and was chair of the Old Testament department. An ordained minister, Dr. Pratt travels extensively to evangelize and teach. He studied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received his M.Div. from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earned his Th.D. in Old Testament Studies from Harvard University. Dr. Pratt is the general editor of the NIV Spirit of the Reformation Study Bible and a translator for the New Living Translation. He has also authored numerous articles and books, including *Pray with Your Eyes Open*, *Every Thought Captive*, *Designed for Dignity*, *He Gave Us Stories*, *Commentary on 1 & 2 Chronicles* and *Commentary on 1 & 2 Corinthians*.

이번 강의는 **성경해석학** 강좌의 열한 번째 강의이고 그 제목은 “개인적인 현대 적용”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른 강의들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우리 시대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항상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에 존재하는 세 가지 유형의 거리, 즉 시대적 거리, 문화적 거리, 개인적 거리를 고려해야 한다.

먼저 거시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역사가 한 위대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이동하면서 일어난 신학적 발전을 탐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범위를 조금 줄여, 우리는 성경 시대의 문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현대 문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틀 안에서 성경의 원래 청중과 현대 청중 사이의 개인적인 유사점과 차이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현대 적용의 이 마지막 차원을 주로 살펴봄으로써 성경이 오늘날 개개인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에릭 소우네스[K. Erik Thoennes] 박사)²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노래를 듣는 방식부터 데이트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석양을 바라보거나 죄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에 영향을 받도록 의도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고하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결국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은 매우 총체적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도도록 되어 있다.

개인들을 위한 현대 적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 강의에서는 두 가지 주요 문제를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가 성경을

² Dr. K. Erik Thoennes is Professor of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at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and is Chair of the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Theology Department.

개인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셨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 다양성부터 시작하여 이 각각의 주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II. 다양성(VARIETY)

우리 대부분은 한 번쯤은 어떤 종류의 기계나 전자 장비를 작동하기 위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사용 설명서에는 보통 간단한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이 설명되어 있으므로, 그것에 따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설명서대로 따라 하면 모든 것이 원래 예상된 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군가 농사, 가족 양육, 사업 운영과 같은 주제에 대해 상세한 사용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가? 당연히 아닐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너무 복잡해서 단계에 따른 일률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그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종종 우리는 성경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단계를 자세히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와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해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신 성경은 단계별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 곧 상상 가능한 가장 복잡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게다가,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은 개개인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기록되었다.

첫째로, 개인적인 적용의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자체의 다양성에 주목할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다양한 가르침이 왜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성경의 가르침 자체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A. 성경의 가르침(BIBLICAL INSTRUCTIONS)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단계별 사용 설명서와 달리, 농업, 가족, 사업 등에 관한 책은 일반적으로 독자에게 광범위한 것에서 구체적인 것까지 다양한 지침을 제공한다. 우선, 이러한 종류의 책은 보통 모든 사람이 모든 상황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그것은 또한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몇 가지 일반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그것은 때때로 발생할 수 있는 다소 구체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종류의 책에는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례 연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러 면에서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책과 동일한 범위의 교훈적 다양성을 반영한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항상 따라야 할 몇 가지 보편적인 원칙, 다양한 상황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 특정 사람과 상황을 위한 구체적인 가르침,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준수하는 데 성공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의 예를 제시한다.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가르침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가르침이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가르침이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르침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1. 구약(Old Testament)

비현실적이기는 하지만, 현대 독자들은 자주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의 모든 율법과 가르침을 암기한 다음 그 가르침을 즉시 실행할 준비를 갖추라고 기대하신 것 같은 인상을 받곤 한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규정 목록은 너무 길어서 그 누구도 그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순종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구약의 가르침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명심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삶의 모든 영역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많은 영역에서 실행해야 하는 지침은 무엇인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가끔씩 상기하면 되는 명령은 무엇인가?

이에 대하여 어떤 랍비들은 이렇다고 주장했고, 어떤 랍비들은 저렇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우선 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마태복음 22 장 36 절에서 구약의 가르침의 우선 순위를 파악하려고 했던 한 율법사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다.

(마 22:36 개역개정)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 장 37-40 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마 22:37-40 개역개정) 3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잘 알려진 장면에서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모든 계명에 대한 자신의 권위 있는 견해를 말씀하셨다. 그는 신명기 6 장 5 절에 나오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장 큰 계명으로 꼽으셨다. 그리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바로 레위기 19 장 18 절에 나오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두 번째로 큰 계명으로 추가하셨다. 그의 관점에서는 이 두 계명이 다른 모든 성경의 가르침보다 우선 순위를 가졌다.

물론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함께 언급하신 것은 공통의 초점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 두 계명 모두 사랑에 대해 이야기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다른 모든 계명보다 우선 순위에 두신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계명들은 마음의 깊은 문제,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태도, 헌신, 동기, 목표 등을 다루고 있다. 사실상 예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성경의 보편적인 원칙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이다.

(앤드류 데이비스[Andrew Davis] 박사)³ 예수님은 한 율법사로부터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매우 중요한 대답을 주셨다. 그리고 나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계명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동등하게 여기지는 않으셨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의 첫 번째 충성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이자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매일의 최우선 과제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으신 것은 아니었다. 율법사가 던진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두 번째로 큰 계명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 두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 특히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두 계명은 예수님께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구약 성경 전체를 지칭하는 용어)”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라고 덧붙이셨다.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 많은 해석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³ **Dr. Andrew Davis** is Senior Pastor at First Baptist Church of Durham, NC and is Visiting Professor of Historical Theology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사랑을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계명을 배제하거나 무시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해석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2 장에서 가장 큰 두 계명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 장 19 절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명 중 “가장 작은 것”도 지키라고 가르치셨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라.

(마 5:19 개역개정)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을 비롯한 여러 구절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작은 계명으로부터 가장 큰 계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23 장 23 절에서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실 때 가장 큰 계명부터 가장 작은 계명까지 다양한 계명을 인정하셨다.

(마 23:23 개역개정)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새번역/공동번역: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개역: 의와 인과 신]”을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를 드리는 덜 중요한 것과 대조하셨다는 것을 주목하라. 다시 한번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명령을 준수해야 하지만 올바른 우선 순위를 염두에 두어야 함을 지적하셨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모빌 형태로 시각화해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모빌의 상단에는 보편적인 원칙인 두 가지 가장 큰 계명, 곧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다. 우리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말씀을 듣는다.

이 두 가장 큰 계명 아래에는 어떻게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추가 원칙들이 있다. 여기에는 십계명과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일반 지침들 그리고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원칙들이 포함된다.

이 광범위한 원칙 아래에는 “지극히 작은 계명들”이 있다. 이것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비교적 구체적인 가르침으로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더 높은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여기에는 예를 들어 레위기에 나오는 예배에 관한 지침들, 시편에 나오는 지침들, 욥기와 잠언서와 같은 지혜서 그리고 이사야와 에스겔과 같은 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가르침이 포함된다.

모빌의 하단에는 구약의 내러티브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시편과 지혜서에도 종종 나타나는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다. 이 구절들은 특정 남성과 여성이 특정 상황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계층적 배열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가르침을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구약 성경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2. 신약(New Testament)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짧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르침의 수를 줄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의 가르침 목록은 고대 이스라엘의 가르침 목록보다 더 길었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을 신약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구약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신약에 더 많은 가르침이 추가된 것은 중요한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신약의 저자들은 왜 구약의 가르침에다 그들 자신들의 가르침을 추가했는가?

이전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구약의 어떤 가르침도 잊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구약 시대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사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청중이 과거의 방식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대 교회에게 구약의 가르침을 새 언약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쳤다.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초림을 하나님의 왕국, 곧 메시아 왕국의 개시로 이해했다. 그들은 또한 새 언약 시대가 지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구약의 가르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메시아 왕국이 최종적으로 극치에 이르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바라보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약의 저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우선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누가복음 10 장 27 절, 고린도전서 13 장 13 절, 요한일서 4 장 21 절과 같은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보편적 원칙은 계속해서 가장 큰 계명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약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 마음을 바쳐야 한다.

둘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또한 마태복음 19 장 18 절과 로마서 13 장 8-10 절과 같은 구절에서 십계명과 구약의 다른 일반적인 지침들에도 주의를 환기시켰다.

셋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고린도전서 14 장과 디모데후서 4 장 1-5 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특정한 사람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넷째로, 우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다른 여러 구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한 사람들의 구체적인 역사적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경의 주제가 너무 복잡하고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다양한 가르침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가르침을 머리속에 둘 수 없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명령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키라고 가르치셨던 우선 순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세부 사항에서 길을 잃을 수 있다. 특정 문제를 다룰 때 구체적인 지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에 의해 동기 부여를 받고 인도를 받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우선 순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어떤 식으로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종류의 선택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성경의 보편적인 원칙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일반적인 지침과 구체적인 상세한 가르침과 구체적인 예들로부터 유추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노력해야 한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⁴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가르치실 때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을 주신다. 첫째로, 도덕법이 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모든 때에 유효하다. 둘째로, 시민법이 있다. 이것은 영원한 원리를 시간 조건에 맞게 적용한다. 나는 소가 없기 때문에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한 율법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법을 좋아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분의 소가 못된 줄 알면서도 우리에게 가두어 두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소가 이웃을 죽인다면 여러분은 살인자가 된다는 원칙이 있다. 반면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의 유순한 기질에 의문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우리에게 가두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소가 광분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죽인다면, 여러분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에게 소는 없지만 차는 있다. 내가 브레이크가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나의 차로 여러분을 죽인다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나는 살인자가 된다. 그렇다면 본래 받는 소에 대한 율법에 들어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그 원칙은 아는 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민법의

⁴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경우, 원칙을 추출해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로, 의식법이 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배의 의식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영원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실물 교훈으로 사용하신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돼지가 그들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돼지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매우 분명히 하셨다.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여러분이 돼지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아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실물 교훈이다. 일단 교훈을 배우게 되면, 더 이상 실물은 필요하지 않다.

(스티브 블레이크모어[Steve Blakemore])⁵ 성경에 나오는 계명들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주어진 계명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 사도행전 15 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보면, “이방인들은 모세 언약의 계명들과 관련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교회의 지도자들은 아주 분명하게 대답했다. 그들은 “우리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말고, 다만 이러한 것들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며,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는 것, 피를 마시는 것 등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이 목록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의 정신을 꿰뚫는 일종의 핵심 신념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본다. 이는 이스라엘의 언약에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지만 언약의 모든 명령들이 단지 규칙으로만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⁵ Dr. Steve Blakemore is the Assistant Professor of Philosophy at Wesley Biblical Seminary.

요구하시는 핵심 정신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모든 것을 요약하고 싶다면 이렇게 귀결된다고 하시며 “첫째는 이것이니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막 12:29-31].”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개인적인 성경 적용의 다양성이 성경 가르침의 다양성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적용의 다양성을 가져오는 두 번째 요소, 곧 관련된 사람과 환경의 다양성을 살펴보자. 그럼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B. 사람과 상황(PEOPLE AND CIRCUMSTANCES)

이전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과 환경들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심으로써 항상 자신의 백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도해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상당한 문화적 다양성을 허락하셨다.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면, 우리는 다양한 사람과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를 고려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성경 가르침의 위계(位階)를 다시 고려함으로써, 우리는 사람과 환경의 다양성이 개인적인 적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우리는 네 가지 범주의 가르침을 “상위” 가르침, 곧 보다 일반적인 성경의 가르침과 “하위” 가르침, 곧 보다 구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으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그럼 성경의 상위 가르침부터 살펴보자.

1. 상위 가르침(Higher Instructions)

성경의 상위 가르침에는 보편적인 원칙과 일반적인 지침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유형의 가르침은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보다 우선 순위가 높다. 그러나 우선 순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반 계시에 비추어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으로, 성경의 상위 가르침을 적용하기 위해, 우리는 관련된 사람의 특성을 평가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사회적 지위, 능력,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아는 것은 성경의 상위 가르침이 그 당사자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먼저,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우리 모두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가?" 그러면 당연히 그들 모두는 "물론이지."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진다. "그럼, 오늘 이 방을 나가면 각자 무엇을 할 건가?" 사실 우리는 각 사람이 옳은 일을 할 것이지만 각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다. 한 친구는 "나는 집에 가서 아이들을 돌볼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다른 친구는 "나는 가게로 가서 식료품을 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친구들 모두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각자 옳은 일을 하겠다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옳은 일을 하라."는 일반적인 가르침은 친구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레위기 19 장 18 절에 나오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원칙은 모든 상황에 처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이 명령을 똑같은 방식으로 지키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 어른은 어른 나름대로 자기 사랑을 표현하고,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자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역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각 사람의 능력, 약점, 경험, 영적 상태 등은 이웃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다른 한편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보편적인 원칙은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르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장애물, 도전, 기회에 직면한다.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 각자가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이웃 사랑은 전쟁의 시기와 평화의 시기에 따라 다르고, 풍요의 시기와 결핍의 시기에 따라 다르고, 질병의 시기와 건강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성경의 상위 가르침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과 환경의 다양성을 따라 어떻게 성경의 상위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위계 중 하위 요소에 속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볼 것이다.

2. 하위 가르침(Lower Instructions)

우리의 목적상, “하위” 가르침에는 성경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침과 성경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역사적 예가 포함될 것이다. 상위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하위 가르침도 관련된 사람과 환경의 다양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가족을 위한 안전한 집을 지어라.”와 같은 구체적인 지시를 상상해 보라. 추운 기후에 사는 사람은 따뜻한 기후에 사는 사람과 다르게 집을 지을 것이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 있는 집은 지진을 받는 지역에 있는 집과는 다른 구조적 요소를 필요로 할 것이다. 여기서 상위 원칙은 사람이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침은 이 상위 원칙을 충족시키는 집을 짓는 것이다. 그리고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환경에 있는 유사한 집의 사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두 사람도 구체적인 지침에 대하여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가 비교적 구체적인 성경 가르침을 오늘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때마다 일어난다. 첫째로, 우리는 상위 가르침뿐만 아니라 고려 중인 상위 가르침을 지향하도록 하는 데 밀접하게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도 고려한다. 둘째로, 우리는 그 구체적 가르침에 의해 원래 영향을 받은

사람과 환경을 파악한다. 셋째로, 그 구체적 지침에 의해 영향 받은 원래 청중의 삶과 우리 자신의 삶을 비교하여 그것을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파악한다.

(존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 성경의 특별한 성격 중 하나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던 특정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점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유일한 경전이다. 세상의 다른 경전들은 일종의 처방전, 곧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진술에 불과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맥락을 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이런 종류의 일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항상 "이런 상황의 맥락에서 주어지고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그 원리는 나의 새로운 상황의 맥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라고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출애굽기 21 장 23-25 절을 오늘날 개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읽는다.

(출 21:23-25 개역개정) 23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갇되
생명은 생명으로, 24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갇을지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5 장 38-39 절 말씀을 들어 보라. 여기에 기록된 산상 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개인 생활에 다음과 같이 적용하라고 가르치셨다.

(마 5:38-39 개역개정)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갇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예수님께서 재판관과 사법 제도에 대한 구약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법정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공정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직면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재판관들에 대한 이 규정을 개인적인 관계에서 복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지침을 성경의 상위 가르침과 다른 “하위” 가르침들과 비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가르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사실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출애굽기 21 장의 원래 청중과 자신들을 비교하라고 암묵적으로 요청하셨다. 모든 사람은 사법 제도의 정의와 공정성을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맡고 있다면 출애굽기 21 장을 법정에서 재판관처럼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결코 재판관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는 정의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자비와 친절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다른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19 장 21 절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 관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다.

(마 19:21 개역개정)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의 더 넓은 문맥을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돈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상위 원칙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하위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 청년은 돈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은 때때로 이 구절이 현대 사회의 모든 부자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한다는 뜻인지 궁금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재산과 부에 관한 성경의 상위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 더 구체적인 하위 가르침을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이 소유물에 관해 제시한 다른 가르침과도 비교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대답은 오늘날 개인들과 그들의 환경을 부유한 젊은 관원과 그의 환경과 비교하는 데

있다. 우리가 그를 더 많이 닮을수록, 우리의 현대적 적용은 그가 그 시대에 해야 했던 일을 더욱더 닮아야 한다.

개개인을 위한 현대 적용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현대인들이 개인 적용의 다양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성경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우리는 두 번째 주요 주제인 적용에 대한 지혜의 필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III. 지혜(WISDOM)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성경을 집어 들고 읽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매우 선택적으로 성경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시인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성경의 다양한 가르침을 다루기보다는, 그저 개인적으로 성경을 선별하여 우리 삶에 쉽게 적용되는 것을 찾는다. 이런 광범위한 관행이 이해될 만한 이유는 많은 경우 성경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은 이런 식으로 다루어지도록 기록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서로 교류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정하셨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성경의 어려운 부분까지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적용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주실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적용의 지혜를 얻도록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과 초기 교회에는 오늘날처럼 인쇄기, 출판사, 성경의 대량 유통을 위한 수단 등이 없었다. 설령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류함으로써 성경을 적용하는 법을 배울 것을 기대하셨다.

우리는 개인 적용에 대한 지혜가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통해 자라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탐구할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성경의 일차적인 수신자로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들이 맡은 중요한 역할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성경을 보급하거나 전파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개인 적용의 지혜를 얻는 데 있어서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A. 지도자들(LEADERS)

복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신자 개개인을 위해 기록된 책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의 저자들이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적지 않다. 성경의 저자들은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글을 쓰는 대신,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전파하도록 임명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글을 썼다.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 어떻게 성경이 주로 지도자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구약부터 살펴보자.

1. 구약(Old Testament)

일반적으로 구약 시대에 성경을 직접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 레위인, 선지자, 지혜자, 사사, 왕, 기타 귀족뿐이었다. 이 때문에 구약의 저자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한 증거를 적어도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구약 책들의 일차적인 수신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다.

몇 가지 예만 들면, 신명기 31 장 9 절, 열왕기하 22 장 8-10 절과 같은 구절은 모세의 율법이 레위 제사장들의 관리 하에 보호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출애굽기 21 장 1 절에서 23 장 9 절까지 나오는 언약서의 많은 지침은 재판관들이 법정에서 적용할 판례법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율례(히브리어로 [미시파팀])”라고 불리었다. 그리고 잠언 1 장 1 절과 25 장 1 절과 같은 구절에서 소개 정보를 제공하는 표제들은 이 잠언들이 유다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해 고위급 지혜자들과 왕실 인물들에 의해 수집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다른 많은 구절을 통해 구약의 책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먼저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구약 책들의 내용 또한 그것들이 일차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록된 것임을 보여준다.

구약의 많은 책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거의 없는 주제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열왕기상 6 장의 성전 건축에 관한 장황한 지침들은 이스라엘의 평범한 목자, 농부, 또는 장인의 삶에 간접적으로만 관련이 있다. 이와 매우 흡사하게, 부, 쾌락, 명성 등을 추구하는 것의 무익함에 대한 전도서의 성찰은 대다수 이스라엘 남녀가 직면한 도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약의 책들의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직면한 요구와 도전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지침들을 제공하기보다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직면한 필요와 도전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

셋째로, 구약 성경의 복잡성은 또한 이 책들이 주로 재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현명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록되었음을 보여준다.

확실히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은 어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약의 복잡성이 가장 전문적인 독자들에게도 도전을 준다는 것을 안다. 한 가지 예만 든다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와 같은 선지서는 너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어리둥절했을 것이다. 대체로 구약의 책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직접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로 국가의 지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여러 측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구약의 저자들의 첫 번째 청중이었던 것처럼, 신약의 저자들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장로, 집사 및 기타 주요 인물과 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책을 썼다.

2. 신약(New Testament)

첫째로, 신약의 어떤 책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일차적인 수신자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 디도서 역시 바울의 제자인 디도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초대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피터 워커[Peter Walker] 박사)⁶ 바울 서신 중 목회 서신이라고 알려진 세 권의 서신이 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1 세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 불린다. ... 바울은 자기가 특히 에베소를 떠나 있을 때 에베소 교회를 떠맡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 매우 염려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젊은 디모데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격려하고 이 중요한 임무를 잘 감당할 힘을 실어주기 위해 디모데전서를 쓴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또 다른 “2 인자”인 디도에게도 편지를 쓴다. 디도는 디모데보다 어떤 면에서 더 믿을 만하고 좀 더 강한 인물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임무에 대한 격려가 필요했다. 당시 디도의 임무는 그레데 섬의 기독교 신자들과 그들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므로 이 두 서신은 바울이 일루리곤을 거쳐 그리스로 내려가는 길에 그의 두 핵심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신약 성경의 내용도 역시 교회 지도자들을 일차적인 수신자로 지목하고 있다.

신약의 책들의 역사적 배경을 고려해보면, 그것들이 대부분의 1 세기 신자들에게는 생소한 주제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가지 예로, 신약의 많은 책들은 구약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이방인 회중을 위해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 본문을 수백 번 언급했지만, 자주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신약의 저자들은 지식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1 세기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생소한 이러한 가르침과 기타 가르침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신약의 가르침의 복잡성 또한 그 일차적인 수신자가 교육받은 지혜로운 지도자였음을 나타낸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었지만, 초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도 적지 않았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조차도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그[바울의 서신들] 중에 알기 어려운

⁶ Dr. Peter Walker is Professor of Biblical Studies at Trinity School for Ministry.

것이 더러 있으니, ..."라고 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글을 썼기 때문에 대부분의 일반 신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교회의 재능 있는 지도자들은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할 책임이 있었다.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경 책들의 주요 수신자였다는 사실은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교회의 역사는 신자 개개인이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발생하는 성경의 남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극단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기독교 지도자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성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경의 생소한 내용과 복잡성을 다루도록 지도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대인들도 같은 이유로 지식과 지혜로 성령님의 복을 받은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사실, 히브리어와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 본문을 포함하여 우리 손에 있는 성경조차도 주요 학자들, 곧 고대 본문들의 본문 비평, 수집, 편집, 출판과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다. 더욱이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현대 번역 성경들은 고대 히브리어와 아람어와 헬라어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과 번역 기술에 대한 최고 전문가들의 작업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가치가 있지만, 성경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하고자 할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찾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유세프 우라마네[Youssef Ourahmane] 목사)⁷ 지도자는 모든 일에서, 곧 사랑과 의로움과 기도에서, 그리고 물론 가르침과 교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는 성장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집중하며 아무도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딤후전 4:12]고 조언했다.

⁷ Rev. Youssef Ourahmane is involved in training church leaders at the Timothy Training School in Algeria.

그러나 바울은 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라고 말했다.
이것은 지도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는 권고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히 13:17 개역개정)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까지 적용의 지혜를 기르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교류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제,
곧 성경의 가르침의 전파와 적용에 있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고찰할 것이다.

B. 공동체(COMMUNITY)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평범한 사람들은 성경을 직접 접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성경을 적용했는가? 간단히 말해서,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백성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적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거나 전파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썼다.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성경을 어떻게 공유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성경의 개인적인 적용에 있어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찰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신약에서 성경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럼 구약에 나오는 공동체의 성경 공유부터 살펴보자.

1. 구약(Old Testament)

구약 성경과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내러티브, 율법, 잠언, 시편,
선지자의 선포 등이 성경 책으로 수집되기 전에 먼저 구두로 전파되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에 대한 기록들이
어떻게 처음으로 읽은 지도자들을 넘어 백성에게 퍼져 나갔는지에 더 관심이
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이스라엘이란 더 큰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단서들이 많다. 예를 들어, 신명기

31 장 9-29 절에서 모세는 먼저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주었다. 그런 다음 모세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초막절 기간 동안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함으로써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율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추가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의 복과 저주를 노래로 만들라고 하시며 백성이 부르는 그 노래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끊임없는 증언이 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이 외에도 신명기 17 장 8-13 절과 같은 구절은 레위인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법정의 재판관들이 판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적용하며 일반 백성에게 그 율법의 의미에 대해 가르쳐 주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열왕기왕 3 장 16-28 절은 왕궁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열왕기하 23 장 1-3 절은 언약을 갱신할 때 왕이 큰 소리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백성의 귀에 들려주고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그대로 지키라고 지시한 것을 보여준다. 에스라 10 장 16 절은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삶에 적용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12 장 27 절은 부모들이 유월절의 예식에 대하여 묻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신명기 6 장 6-9 절에 나오는 모세의 가르침은 부모들이 언제 어디서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성경의 가르침이 이스라엘의 일반 대중에게 전해졌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따르도록 서로를 격려했다.

구약 성경은 또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암송을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 짧은 내러티브, 십계명, 시편, 잠언, 선지자의 많은 예언, 노래, 비유 등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해 암기되었다.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었다. 한 가지 예로, 시편 119:11-16 의 말씀을 들어보라.

(시 119:11-16 개역개정) 11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2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13 ... 14 ...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쉬운성경: 나는 주의 법규를

따르는 것을 기뻐합니다] 15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16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구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는 것을 기뻐”했다. 그는
[하나님의] 법도를 “읊조리고(묵상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이를
개인적인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다.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⁸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나는 시편 119 편이 우리가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모델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 내 마음을 무가치하고 헛된 것에서 돌이키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우리도 성경을 접근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게 하고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죄악된 것들로부터 돌이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모델을
제공한다. ...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주님과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라고 요구하신다.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성경을 전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신약의
교회에서도 비슷한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2. 신약(New Testament)

대체로 초대 교회 공동체는 1 세기 회당의 관행을 따라 성경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전체에 전파되도록

⁸ Dr. Robert L. Plummer is Associate Professor of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성경을 읽고 설명할 책임이 있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하신 일을 전하는 누가복음 4 장 14-29 절에 나오는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의 모임에 참석하셨다고 전한다. 회당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두루마리를 건네주었고, 예수님께서 공손하게 서서 그들이 준 이사야서의 한 부분을 읽으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덮어 그 맡은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그분이 읽으셨던 말씀이 회중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하셨다.

신약의 여러 구절들은 초대 기독교 교회들이 이러한 회당 교육 방식을 모방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예로, 골로새서 4 장 16 절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을 들어보라.

(골 4:16 개역개정)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편지가 골로새 교회의 회중에게 낭독되고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즉 회중)에게도 낭독되기를"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신약의 저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모임에서 자신들의 책을 읽고 설명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록했다.

초대 교회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집에 가서 스스로 공부하라고 하지 않았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성경을 공적으로 낭독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적용하였다.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들은 이 가르침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퍼져 나갈 때 서로서로 그 가르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러한 공동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적인 묵상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초대 교회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암송하고 그 가르침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의미를 묵상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안에 예수님의 비유, 마태복음 5 장의 팔복, 마태복음 6 장의 주기도문처럼 쉽게 외울 수 있는 가르침이 포함된 이유 중 하나이다. 그것은 또한 빌립보서 2 장 6-11 절, 골로새서 1 장 15-20 절처럼 초대 교회의 찬송으로 보이는 구절이 많은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것은 또한 디모데후서 2 장 11-13 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이유를 설명해 준다.

디모데후서 2 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묵상을 실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적 통찰을 구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거기에 그가 기록한 것을 들어보라.

**(딤후 2:7 개역개정) 내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썼던 것을 “숙고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시기를” 기대했다. 묵상을 통해, 주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영감 받은 말씀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고, 그 결과 디모데는 그 말씀을 개인 생활에 적용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과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자신의 개인 생활에 적용한 방식은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관행과 매우 달랐다. 이스라엘과 초대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성경을 받은 다음, 그것들을 더 넓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전파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맥락에서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관행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이러한 관행은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에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런 관행은 성경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세 가지 시사점을 준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대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지도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원래 청중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가르침을 가르쳐 줄 지도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해당되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해당된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고 있을지라도, 우리 삶에 성경을 적용하려고 할 때 우리를 도와줄 현명하고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둘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대인들은 성경을 적용하려고 할 때 더 큰 기독교 공동체, 즉 그리스도의 몸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두 눈이 한 눈보다 더 낫다.”는 오래된 속담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실, 세 눈, 네 눈, 다섯 눈, ... 천 개의 눈이 한 눈보다 낫다. 간단한 사실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한 번쯤은 특정 적용이 완벽하게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가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이 성경을 자신의 개인 생활에 성경을 적용하면서 다른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다.

베드로후서 3 장 16 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벧후 3:16 개역개정)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로버트 플러머[Robert L. Plummer] 박사) 이 구절을 내가 좋아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것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어떤 것들이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여러분이 성경을 왜곡하여 영감받은 의미에 충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그것들에 여러분의 주장을 덧씌울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 우리가 다른 신자들과 함께 모일 것이라는 암묵적, 명시적 기대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고린도전서 12-14 장, 로마서 14 장, 에베소서 4 장 등 많은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신 다양한 영적 은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에베소서 4 장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신 은사 중 하나는 목사와 교사이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이 성령을 받고 성경을 읽고 이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설명하고 성경에 담긴 내용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대인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을 새롭게 함으로써 적용의 지혜를 찾을 필요가 있다. 비록 지도자들 그리고 더 큰 그리스도의 몸과 교류하는 것이 중요할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적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실” 것을 구하는 것을 도외시하며 우리가 스스로 하는 어떤 일로 축소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적용하고 있다는 확신을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실 것이다.

(도널드 위트니[Donald S. Whitney] 박사)⁹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것이 출발점이다. 여러분은 그것을 해야 한다. 그러나 묵상은 성경을 흡수하는 것이다. 성경의 흡수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하는 삶의 변화로 이끌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묵상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된다. 성경에 담긴 정보는 그 순간 주님과 함께 하는 경건의 체험이 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심지어 가장 헌신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조차도, 묵상하지 않는다. ... 성경을 읽기만 하지 말고 성경을 묵상하라.

IV. 결론(CONCLUSION)

개인적인 현대 적용에 관한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성경을 개인으로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성경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성경 가르침의 다양성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과

⁹ Dr. Donald S. Whitney is Associate Professor of Biblical Spirituality and the Senior Associate Dean of the School of Theology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환경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성경 적용의 지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의 교류에 달려 있음을 살펴보았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며,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일한 법칙이다. 다른 어떤 표준도 우리 개인의 개념과 행동과 감정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삶을 다룰 때 필요한 다양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서로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부르심으로써 성경의 이러한 다양성을 다루는 데 필요한 지혜의 길을 우리에게 제공하셨다. 이러한 관점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성경을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